

‘에이닷’ 초거대 AI 시장 선도 앞장선다

SKT 에이닷, 멀티모달 기술과

나를 더 잘 이해하는 Long-term Memory 장착

**- 2월 中 ‘에이닷’에 오래된 정보도 기억할 수 있는 ‘장기기억’ 기술 상용화 예정**

**: 과거 대화 중 좋아했던 영화 · MBTI 유형 · 애완동물까지 기억… ‘인간대화’와 유사**

**- 텍스트 뿐 아니라 사진, 음성까지 이해하는 ‘멀티모달(Multi-modal)’ 고도화 할 계획**

**- 한국어 GPT-3 기반 AI 서비스 첫 상용화 결실…지속 성장 中**

**- 향후 ChatGPT 접목, GPT-4 R&D 투자 등 초거대 AI 시장 선도해 나갈 것**

|  |
| --- |
| **엠바고 : 배포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 |

**[2023. 1. 24]**

SK텔레콤(대표이사 사장 유영상, [www.sktelecom.com)](http://www.sktelecom.com))이 2월 중 성장형 AI 서비스 ‘에이닷’에 오래된 정보를 기억해 대화에 활용할 수 있는 ‘장기기억’ 기술과 사진, 텍스트 등 복합적인 정보를 함께 이해할 수 있는 멀티모달(Multi-modal) 서비스를 장착해 본격적인 서비스 고도화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또한, 한국어 GPT-3 상용화 서비스를 시작한 앞선 기술력을 바탕으로 ChatGPT와 같은 초거대 AI 모델을 접목하는 등 지속적인 R&D 투자를 통해 국내 초거대 AI 서비스 시장을 선도해 나갈 방침이다.

**■ 에이닷 ‘기억하기’로 풍성해진 대화… 좋아했던 영화, MBTI 유형, 애완동물까지 기억해 내… “친구보다 낫네”**

SKT는 오는 2월 중 이용자가 에이닷과 오래 전에 대화했던 내용 중 중요한 정보를 별도의 메모리에 저장해두고, 사람이 마치 뇌 속에서 오래된 기억을 끄집어 내 듯이 대화 중에 활용할 수 있는 ‘장기기억’ 기술을 에이닷에 적용할 계획이다.

해당 정보들은 이용자가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직업, 취미, MBTI 유형, 애완동물까지 다양한 정보가 포함된다.

일례로 에이닷에게 “오랜만에 지하철 탔는데 환승하기 귀찮아”라고 말하면 “너 원래 택시타는 거 좋아했자나”라며 이용자가 과거에 에이닷과 대화했던 내용을 기억해 답변해주는 식이다.

또한 SKT는 에이닷에게 스키 주제로 대화할 경우 관련된 사진을 보여주면서 대화를 이어갈 수 있는 멀티모달 기술도 2월 중에 적용해 대화의 수준을 진일보 시킬 예정이다.

기존의 초거대AI가 주로 언어에 초점을 맞춘 모델이라면 멀티모달 AI는 텍스트 이외에 음성, 이미지, 제스처, 생체 신호 등 여러 방식의 데이터를 인간처럼 종합 추론하고 의사소통까지 할 수 있는 AI 기술이다.

SKT는 이처럼 멀티모달 AI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에이닷과 연계하여 이용자의 다양한 요구사항이나 업무처리를 정확하게 해줄 수 있는 서비스로 진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 한국어 GPT-3 고도화, ChatGPT 접목 및 GPT-4 R&D 투자 등으로 서비스 지속 진화 시켜 나갈 계획**

SKT는 초거대 언어 모델인 GPT-3의 한국어 버전을 상용화한 에이닷서비스를 론칭한 데 이어, 이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고도화 중이다. 동시에 AI 윤리의식과 준수 의무를 강화한 ‘AI 추구가치’ 내재화에 힘쓰고 있다.

GPT-3는 기존에 공개된 모델 GPT-2 대비 AI모델의 규모를 확장하여, 마치 사람과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듯 사용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SKT는 지난 해 5월 자체적으로 개발한 GPT-3 기반의 에이닷을 출시하고, 별도의 설치가 필요 없는 ‘A.game’, 이용자의 시청 이력과 선호도 기반으로 추천 채널 제공하는 ‘A.tv’, AI가 알아서 사진 편집을 해주는 ‘A.photo’ 등 대폭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하며 진화 시켜 나가고 있다.

향후 SKT는 에이닷에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ChatGPT와 같은 초거대 AI 모델을 접목할 계획이다.

현재 AI 대화 서비스는 명령 위주의 ‘목적성 대화’와 친구처럼 사소한 대화를 함께 할 수 있는 ‘감성 대화’, 지식을 얻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지식 대화’로 크게 나뉘어 지는데 ChatGPT와 연계되면 ChatGPT가 보유한 방대한 정보를 활용해 지식 대화가 한층 강화될 수 있다.

SKT는 AI 기술 내재화를 통해 2017년부터 AI 기술을 NUGU, TMAP 등에 상용 적용 하였으며, 2019년부터 한국어 기반 언어모델인 BERT, BART, GPT-2를 개발하여 이를 오픈 소스로 공개함으로써 많은 기업과 학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20년부터는 초거대 언어모델인 GPT-3와 유사 성능을 보이는 한국어 범용 언어모델(GLM) 개발을 위해 국립국어원과 제휴한 바 있다.

이를 기반으로 지난 해 5월 GPT-3 한국어 특화기술을 자체 개발해 자유자재로 한국어 대화가 가능한 ‘에이닷’을 선보이고, 이 외에도 국내 AI기술 기업 코난테크놀로지와 기술 협력을 추진하는 등 초거대 AI 시장을 리딩하고 있다.

SKT 김영준 A.추진단 담당은 “현재 글로벌 초거대 AI 시장은 국내외 빅테크(BigTech)들이 치열하게 주도권을 쥐기 위해 다투는 전장이 되고 있다”며 “SK텔레콤은 초거대 언어 모델인 한국어 GPT-3기술을 상용화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더욱 적극적인 R&D투자 및 지속적인 서비스 고도화 등을 통해 에이닷을 글로벌 톱 수준의 AI 서비스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
| --- |
| **※ 사진설명**  사진1. 에이닷 서비스 화면 이미지  사진2. 에이닷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홍보모델 |

**▶ 관련문의 : SK텔레콤 PR1담당 혁신PR팀 정재경 매니저 (02-6100-3812)**

텍스트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